

익산 농산물 가공센터 내년 5월 준공

25억8000만원 사업비 확보 지난달부터 공사 추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초기자본금 부담과 창업 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가공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가공 시설 기반을 마련해 주고, 가공창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 6월 공모에 선정된후 2017년

~ 2018년 2년에 걸쳐 총25.8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 11월에 착공, 본격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합월읍 다송리에 위치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내에 985㎡ 규모로 설치되며 전처리시설,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포장실, 가공교육장 등이 마련되어 가공창업보육을 통해 가공품이 생산될 계획이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사업설명회

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공목록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잣류, 음료류, 건조식품 및 분말류, 말랭이류, 조청류, 피클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입 설치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대상은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이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완공되면 농

산물을 직접 가공 판매하여 그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도내 10개소 지자체와 강원도 원주, 정선군의 벤치마킹을 통해 모범 사례와 운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관련 조례도 함께 제정 중에 있어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익산시, 정보보안정책·전자정보보안·사이버위기관리 등

익산시가 2018년도 전북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정보보안정책 및 전자정보보안, 사이버위기관리 등 6개 분야 50개 항목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시는 정보보안 분야 평가지표성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점검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교육을 2,000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 전 직원이 내 PC지키미 프로그램을 이용해 PC 자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출근시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은 "최근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관표창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평생교육도시 학습 성과 공유회 개최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 군산시가 2018년 운영 프로그램 강좌 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미룡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에서 총 48개 강좌 4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과 월명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작품전시(21개 강좌 205명) ▲공연(18개 강좌 217명) ▲무료체험(6개 강좌 140명) ▲프리마켓 등으로 구성해 올 한해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전 공연에는 '슈퍼스타 K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특별 대항 및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며 체험과 프리마켓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판매한다. 작품전시 및 소규모 체험 위주였던 지난해 성과 공유회와 달리 올해는 공연, 체험, 프리마켓까지 더해져 '보고(Go), 듣고(Go), 맛보고(Go), 즐기고(Go)'를 누리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세계로 떠날 수 있도록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시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설계하고 배움과 나눔의 성과를 공유하여 2019년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군산시가 2018년 운영 프로그램 강좌 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과 다양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235개 강좌를 통해 수강생 3,540명이 강좌를 수강했

으며 월명평생학습센터에서는 22개 강좌에서 325명이 수강함으로써 군산시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모범사회복무요원

군산시, 표창·복무교육

군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사회복무요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했으며, 복무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된 모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 및 복지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15명과 사례발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복무 중 느꼈던 경험담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주지방방위청 김영자 복무지도관을 초청해 근무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박인수 건설교통국장도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수범사례발표자에 대한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긍지를 갖고 성실히 복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내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에서는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

람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공무원·군인·사학 연구 수령자, 연속 3단계 참여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등은 참여가 배제

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nsan.go.kr) 고 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운영·윤리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6일 관내 공동주택 입주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단 및 관리소장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파트 관리운영 및 윤리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철호 강사가 다양한 민원 사례를 통해 아파트 관리와 공동주택관리법을 접목시켜 설명했으며 이기남 강사가 장기수선 계

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절차, 사례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해 참석한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입주주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기남 주택행정과장은 "입주민들이

화합·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가 전문화되고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현장 의정활동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가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했다. 군도23호선은 지난 1980년대 편도 1차로로 개설돼 평소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 도로가 좁아지고 도로 상행불량 등 주민불편을 야기해왔으며,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사가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 수송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합일북부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공사구간 내 점검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말산업 특구 기반구축 사업은 익산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해 용안면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에 공공승마장 및 VR 말산업 체험관을 조성하고, 금강변에 승마길 등을 조성하는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람의 신체·정신장애 등의 재활활동과 마음치유를 위한 힐링에 큰 도움이 되는 승마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감을 향상시켜줄 공공승마장, VR 말산업 체험관 등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말산업과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